

Database월드뉴스(국내)

Database world news (Domestic)

Database 뱅크

데이콤 (천리안)

아파트, 상가 등 '분양과 임대사무실 정보'를 제공!

한승정보시스템에서는 아파트/재개발 지역과 빌라 등에 각종분양정보를 서울/경기, 충청/강원, 경상도, 제주도 등으로 나누고 전국 각 지역 분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분양 및 임대 사무실 정보'에서는 임대사무실 정보와 분양뉴스 및 상식 등을 제공하게 되며 분양상담소* 게시판을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해 분양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분양 및 임대사무실 정보(GO MH), 천리안 TOP 메뉴 11번 '부동산' 부문 52번 '분양 및 임대사무실 정보'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분양정보(아파트/재개발, 특수, 빌라), 임대사무실(서울과 경기도 지역), 분양뉴스/상식(각종 분양 소식 안내), 분양상담소(분양과 관련된 상담) 등이다. (제공업체 : 한승정보시스템)

"PC-VAN"의 다양한 "DataBase" 정보 소개

* 세계의 컴퓨터 통신 "PC-VAN"을 천리안을 통해!!

PC-VAN에서 제공하고 있는 'DataBase'서비스는 NEC의 C&C-VAN 데이터베이스, 니찌가이 ASSIST, Dialine 등이 있으며 일본 주요신문 기사정보와 기업체정보, 무역/신제품/마케팅정보, 인물/인재정보, 국회도서관정보, 경영/비즈니스정보 등 다양한 DataBase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의 빠른 정보를 생생하게 만나 볼 수 있는 일본 PC-VAN의 'DataBase' 서비

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PC-VAN을 이용하려면 PC-VAN(GO PCVAN), 천리안 TOP 메뉴 21번의 11번, '해외 서비스 이용안내' 참고 'DATABASE'는 PC-VAN의 TOP 메뉴 7번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아사히, 요미우리, 일간스포츠 정보 등, 제국데이터(기업정보 등), 동양경제(해외출자 기업/외국자본계기업 정보 등), 무역/신제품/마케팅정보, 일간공업신문, 제트로 등, 니찌가이ASSIST(인물/인재, 경영/비즈니스 정도 등), 일본국회도서관정보, 일본출판판매서지정보, NHK뉴스원고 등, DIALINE-PC판, 전국기업 구인정보 등 다양한 DataBase 정보 제공등 이다.

도쿄팩스라인-미국, 일본, 아시아, EC의 각종정보를 빠르게!

"도쿄팩스라인(Tokyo Fax-Line)"에서 세계의 각종 정보와 일본서적안내 등을 해준다.

미국, 일본, 아시아, EC 등의 경제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일본 동경의 'Information System Korea(주)'로부터 매일 새벽 자료를 전송 받아 한글로 번역한 후 천리안을 통해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가지 정보 등도 제공한다. 해외 경제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도쿄팩스라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천리안 TOP 메뉴 7번 '뉴스/날씨/스포츠'부문 31번 '경제/산업/취업'에서 9번 선택(도쿄팩스라인(GO ISK))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정치/사회정보, 산업/무역정보, 금융/증권정보, 정보통신정보, 신기술/신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업체 : Information System Korea)

데이콤,멀티미디어 저작도구 개발..온라인통해 무료배포

데이콤(사장 손익수)은 최근 문자,음성,그래픽,정지화상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멀티미디어 제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천리안을 통한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에 나섰다. 이 저작도구는 도면작성 및 편집이 가능하고 음향,음성,애니메이션(동화상)효과를 내게 할 수 있다. 특히 베이직 언어기능을 내장했으며 음향,음성,애니메이션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어 교육,브리핑,상품 선전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한국PC통신(주) HITEL

데이타리서치 경제경영문헌 서비스

시스템 사정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중단되었던 데이타리서치 제공, 경제경영 문헌정보(GO DRINDEX)가 다시 재개된다. 데이타리서치 문헌정보에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경제경영에 관한 각종 단행본/연구보고와 정기간행물/학회 학술지, 세미나/강좌, 석/박사 학위논문 및 조사/통계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각 정보는 저자, 일자, 서명, 주제어별 검색과 "AND" 및 "OR" 연산이 가능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에 찾아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7.경영·산업 6.정책 자료·통계)의 순으로 선택하시거나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DRINDEX"를 입력하면 된다.

우표정보 서비스 개시

하이텔에서 한국 최초로 발행된 우표로 부터 최근 발행된 우표까지 총 1840여종의 우표를 PC통신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온라인 우표정보'는 그동안 개인 소장자들이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을 통합하여 PC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우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으로 DB화 함으로써 국내 우취연구가의 자료연구와 우취동호인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우표정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하이콤, 이야기 6.0이상, 꿈동이

등이 있다. 우표정보를 보려면 'GO STAMPS'를 입력하거나, 17.공공정보 24. 체신정보 3. 우표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전체 동호회 자료실을 한 곳에

하이텔의 모든 자료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이텔내에는 공개자료실을 위시해 동호회, 꿈동산, 원로방, 기업포럼 등 300여개에 달하는 수많은 자료의 보고들이 있다. 이들중 특히,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창출된 주옥같은 수많은 자료들을 담고있는 동호회 자료실과 전문 업체들이 운영하는 기업포럼자료실 등에는 공개자료실과는 차별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하이텔에 있는 모든 자료실들을 한 곳에 모은 '자료실모음란(APDS)'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료실모음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HiTEL 초기 화면에서 '13.공개자료실' '7.자료실모음란'을 선택 하거나 'GO APDS' 를 입력하면 된다.

동덕여대 대학정보 서비스 개시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장에서 날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동덕여자대학교가 HiTEL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된다. 이번 대학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학교개관, 학과 및 교수진소개, 입시요강안내, 학생자치활동 소개 등 동덕여자대학교의 이모저모가 전달된다. HiTEL을 통하여 더욱 가까워진 동덕여대 캠퍼스를 경험해보길 바란다. 동덕여대 대학정보를 이용하시려면 초기화면 5.교육·취업 5.대학정보 6.동덕여자대학교 순으로선택하거나, 어느 화면에서나 go ddwu를 하면 된다.

철도정보 제공

기존의 문자정보로 구축되었던 철도정보가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철도정보가 제공 된다.

철도정보는 가고자하는 출발지와 목적지에 대한 열차 시간표 및 잔여좌석 조회, 구간별 요금 조회가 가능한 열차요금표, 열차관광 및 호도관광, 온천열차 등에 대한 열차기획상품, 기존의 철도청에 대한 민원처리 창구인 철도기적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17번 공공정보 67번 교통정보 1번 철도정보를 선택하거나 하이텔의 어느화면에서든지 go railway를 하시면 된다.

에너지 절약정보 서비스 개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절약정보]가 하이텔을 통해 서비스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정보개방 방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본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법과 절약방법 등의 에너지 상식, 그리고 요즘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에너지와 환경문제 및 차세대 대체 에너지원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정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서자료와 문헌자료 등도 검색할 수 있도록 짜여져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에너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에너지절약정보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7.경영·산업 4.산업 11.에너지절약정보를 선택하거나 모든 화면에서 'go kemco'를 하면 된다.

에이텔 (POS-SERVE)

[동호회] 영어포럼, 한글 POS-Serve 서비스에 접속가능

영문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던 영어포럼(English Language Forum)이 한글POS-Serve 서비스에서도 제공된다. 작년 개설된 영어포럼은 주한 외국인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한편, 영어에 좀 더 친숙해지고 외국인과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장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현재 주한 외국인 세 명이 영어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

기적으로 전 회원이 참여하여 영어로 온라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제 어디서든 GO FEL로, 영문으로 된 알찬 정보 그리고 주한 외국인과 의 폭넓은 유대관계를 통해 아마 영어에 친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TOP메뉴 5. FORUM → 7. 전문분야·학습 → 8. English Language Forum 또는 GO FEL하면 된다.

한미투자연구소의 <한미투자전략> 서비스

한미투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미투자전략> 정보가 서비스 개시된다. 기존의 대한투자연구소, 현대투자연구소, 업도명 투자경제연구소, 피터린치 증권정보센터에 더하여 이번 8월 1일부터 제공되는 <한미투자전략> 정보는 여러분의 현명한 주식투자를 위한 충실한 조언자로서 도움이 될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TOP 메뉴중 15. 경제·증권·부동산 → 19. 한미투자전략 또는 GO HANMI하면 된다.

<한미투자전략> HANMI 한미투자연구소(02-561-2578)

1. 장중투자전략
2. 장세 전망
3. 주도주 집중공략 및 관심종목
4. 실전투자기법
5. 급등주 포착 및 미인주 발굴

이 서비스는 정보이용시 300원/분이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국정뉴스

체신부

'체신종합박물관' 2000년까지 건립

우리나라 우편과 전기통신등 체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신종합박물관이 오는 2000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된다. 체신부는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9천3백여평에 달하는 현 체신공무

원교육원(서울용산구 원효로 3가) 자리에 3백 억원을 투입해 체신종합박물관을 연건평 3천여 평의 첨단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현재 종합박물관의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장래예측등 기초자료를 분석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박물관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8년까지 설계를 완료, 99년 착공할 예정이다. 종합박물관건립에 따른 부지는 체신부가 제공하고 건설비는 한국통신이 부담하게 된다. 이 박물관에는 현재 서울중앙우체국 건물내에 있는 우정박물관과 용산전화국건물내에 위치한 한국통신 사료전시관에 있는 모든 사료가 이전, 전시되며 정보통신을 통한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첨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체신부, 상반기 불법전파 설비 단속결과

체신부는 불법 전파설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전국 1백83개 지역에서 검정미필기기 일제단속 2회와 불법설비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총 8백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백81건이 감소된 것이며 전자파 장해 검정미필기기 역시 46건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파설비의 유형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선국이 6백46건, 증폭기설치·공중선변경·휴대형무선기의 차량설치, 불법주파수 사용등 허가 설비의 변칙사용이 1백99건, 전자파장해검정 또는 형식 검정을 받지않은 기기를 유통한 것이 15건이다.

체신부는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있는 위반자에 대한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전체 위반자의 30.9%에 해당하는 2백66건을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취했으며, 허가신청중 또는 검정신청중에 적발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5백9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전파 이용기술의 발전과 전파이용활성화 정책으로 전파설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신부는 불법설비 및 변칙사용이 일부 판매업자의 부추김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불법·변칙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거나 공사하여준 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전파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산업정보망) 산·관 잇는 국가신경망 구축

97년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산업정보망 구축사업의 전체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정보망사업의 추진부처인 상공자원부는 최근 전담업체로 선정된 세일 정보통신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사업 수행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총투자예산 6백 38억원. 통신서비스 대상범위 3백 32개 상공부산 하 기관 및 관련단체및 전세계 해외관련기관.제공서비스종류는 EDI서비스·ATM망 서비스·멀티미디어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정보처리 서비스·FAX축적전송 시범서비스 이상이 산업정보망사업의 대략적인 외형이다. 3차년도로 나뉘어 수립된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1차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95년 5월까지의 서울지역의 14개기관 및 단체, 시범기업체 40개에 대한 시범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인데 25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5건의 EDI개발환경 조성, 법·제도개선방안 마련, 가입자용 에뮬레이터 개발이 이 기간중에 이루어지게 된다.

회선은 한전의 공중망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순수 개발비만 1백 70억 4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년도 사업중의 하나는 용역사업. 총 34명의 국내 전문기관·연구소·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사업에서는 기초자료 조사와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 마스터플랜이 작성된다.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년도(95년 6월 부터 96년 5월까

지)에는 서비스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각지역에 전산 센터가 설립되는 한편 제공서비스종류도 5개로 크게 제고돼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된다. 이 기간의 총 개발비는 2백20억 1천만원.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35개로 확장되고 15개의 EDI 서비스가 개발되며 해외망이 구축되는 것도 이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서비스단계를 거쳐 서비스의 상용화가 개시되는 3차년도에는 주지역센터를 6대도시에서 12대도시로 확대하고 부산지역에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립 하는 외에 법·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자 통합 애플레이터의 개발작업이 완료되고 기존의 서비스외에 FAX 축적전송서비스 등이 추가, 제공서비스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며 한전망의 무상 사용이 이때부터 실시된다. 이와같은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망구축의 세부내역도 밝혀졌는데 내년 5월까지 대형컴퓨터 1대와 FEP(중형컴퓨터)1대가 도입되며 부대설비 1식이 별도로 구축된다.

또 2차년도에는 대형 컴퓨터 2대가 추가 도입되고 중대형 1대, 부대설비 1식이 각각 추가로 배치될 계획으로 있다. 3차년도에는 중형 이미지서버 1대와 중형컴퓨터 6대가 추가로 도입돼 완벽한 컴퓨터통신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2차년도부터는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전송망의 주설비인 ATM교환기를 설치하여 ATM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본적인 통신망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광케이블을 이용한다는 것이 세일정보통신의 기본 전략이다. 전산설비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확정했는데 우선 안정적인 구축작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산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다. 전산센터는 시스템운영실과 설비운영부·설비보수부·전송망운영팀·시스템운영팀·지방사업팀으로 구성되며 24시간 무정지운영을 위한 환경대책과 실질적인운영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서비스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도 산업정보망사업

중 추진해야할 중요 과제중의 하나다. 이와관련 총 4백 8개분야에 걸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총 45건의 EDI문서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처

과기처, SW 기술개발 계획 본격 추진키로

과기처는 국가 초고속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소프트웨어기술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8천만원의 예산을 우선투입, 이달 중에 기획사업에 착수키로 했다.과기처는 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시스템공학연구소를 선정하고 HCI(인간중심의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 정보처리 표준화·안전성 연구전산망 정보기술교육 과학기술정보DB 등 6개분과를 구성했다. 과기처는 이들 6개분야중 연구전산망을 시범 전산망의 개념으로 구축개발하고 이를 국내외의 전산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연구전산망은 대덕연구단지의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연구소를 주축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연구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망정보,망관리,망보안센터를 두도록 할 예정이다.

첨단 영상 SW 지원 기술개발 계획안 마련

과기처는 오는 2003년까지 모두 1천5백억원을 투자해 영상산업을 세계수준으로 육성,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할리우드화 하기 위한 “첨단 영상 소프트웨어 지원 기술개발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기처는 이 계획(안)에서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영상표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획기적인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처는 이 계획에서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각각 추진돼 온 영상산업 관련 기술개발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첨단 영상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컴퓨터그래픽(CG)기술, 가상현실(VR) 구현기술, 시뮬레이션, 멀티미디어 처리 소프트웨어등은 과기처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계획(STEP. 2000)중 응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과기처와 체신부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지능형멀티미디어 컴퓨터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KIST 2000 및 미래원천기술 개발사업중 그래픽 고속처리 컴퓨터 개발, 3차원 영상매체 기술개발 및 휴먼로봇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상산업 관련 고급기술인력의 양성과 민간업체를 위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해 연구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첨단 영상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를 오는 9월 시스템공학연구소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교통부

교통부 종합물류망 구축 계획

교통부는 철도를 비롯해 해운·항공·공로의 종합 일괄운송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오는 96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있다. 이 종합물류정보망은 민간분야에서 현재 구축중에 있는 해운 항만청의 해운정보망과 항공정보망, 복합터미널을 연결한 국내화물정보망을 연결 하고 무역자동화망·통관자동화망 등 유관전산망과도 연동, 물류흐름의 모든 업무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종합물류정보망은 지난해말 청와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기획단이 제시한 “물류종합전산망 추진계획”의 기본 이념을 따르는 것으로 SOC 기획단은 당초 중심 VAN을 통해 무역·통관·물류 등 3개망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부는 이 종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종합물류정보망 추진위원회를 구성, 물류정보망 구축사업의 종합적인

추진과 표준화를 유도하게 되는데 우선 오는 '96년까지 단위정보물류망을 구축하고 '96년 이후부터는 종합물류정보망 체계로 통합,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위물류정보망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개발중에 있는 KL-Net(해운물류정보망)와 OSI(철도운영정보망)사업의 경우 오는 '96년을 목표로 실용화하고 현재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화물유통정보망과 항공화물정보망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해운항만청 주체로 추진되는 해운물류정보망의 경우 해상수출입 화물 유통관련서류의 일괄처리체제를 확립하고, 화물추적을 비롯해 재고관리, 선박스케줄 등 다양한 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는 현재 상세설계 및 한국물류정보통신이라는 전담사업자 설립까지 마치고 지난 7월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간 상태다. 철도청이 추진하는 철도운영정보망사업은 운임청구를 비롯한 운송장, 계약관리등 철도화물 고유의 운송업무를 전산화하고 철도차량의 이동, 배치, 장비소재 관리 업무와 열차 편성·운영·동력차운영업무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며 '96년 실용화 목표로 현재 삼성데이터시스템을 전담사업자로 시스템개발 중이다.

교통부는 특히 정부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수도권 신공항 및 인근지역간에 시범적으로 초고속 물류정보통신망시범 서비스에 이어 이를 지역별 물류 초고속 물류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안에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96~'99년까지 관련시스템 개발 및 정보망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도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관련 연구기관간의 기본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정보은행을 설치하는등 물류유통 통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

노동부, 고용전산망 사업자로 삼성데이터시스템 선정

삼성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삼성데이터시스템이 노동부가 고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중인 고용보험전산망 구축 전담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데이터시스템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 전산망사업 입찰경쟁에는 삼성데이터시스템, 포스데이터, 한국컴퓨터, 한국IBM등 4개 업체가 참여했었다. 이번달부터 오는 '96년 6월까지 26개월에 걸쳐 1백여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국의 피보험자, 노동시장, 고용자원, 능력개발상황 등의 자료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한편, 보험관련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 도형정보시스템 구축기로

해운 항만청이 국내의 항만시설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형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해운항만청은 그동안 각종 항만관련 개발 및 관리가 부서별로 다원화돼 종합적인 업무관리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CAD(컴퓨터 이용 설계)와 GIS(지리정보 시스템)를 이용해 전국 항만의 각종 시설물 제원에 대해 문자·도면·사진 등의 도형정보로 각각 DB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올해초 항만개발 도형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업체로 유니시스템코리아(주)를 최종 확정하는 한편 지난 2일 GIS.CAD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평가시연회를 개최했다.

이어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착수하고 내년 초부터 국내 항만시설 관련정보에 대한 DB작업을 본격 추진, 오는 96년말 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운용되던 도면관리·시설물관리·유지보수관리·공사관리·재해관리·개발계획관리·예산관리 등 전

반적인 항만개발 및 건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인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10월 운영

인천시는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본청 1층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과 해당 분야 공무원이 상주하는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법률상담·세무상담·일반행정 무료대서 1회 방문 상담 특정분야 민원 상담 등 5개 창구를 갖추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게되며 취업및 관광안내와 각종 고발센터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 센터에는 또 시민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행정정보자료 센터는 물론 하이텔, 인디텔, 국가종합행정정보 등을 컴퓨터로 제공하는 PC정보자료센터도 설치된다.

공공뉴스

한국통신

농촌에도 원격의료 서비스

농어촌지역 주민들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인 화상전송시스템을 통해 대도시 종합병원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10월 1일부터 전남 구례군 보건의료원과 광주의 전남대병원을 화상전송시스템으로 연결해 원격의료진단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원격의료서비스는 △엑스선·초음파·내시경 등 화상 전송 △의료용필름·사진 전송 및 저장·보관·검색·영상을 이용한 환자 문진·접수·수납 등의 전산처리 등 갖가지 기능을 제공하게 돼 농어촌 벽지 주민들도 대도시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환자의 응급조처에 큰 도움을

주고, 지방에서 자체의료기술로 진단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최신 의료정보의 교환과 자문 등으로 훨씬 나은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움직이는 영상을 실시간(리얼 타임)에 원격지에 보내는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한 동영상진단시스템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의료 외에 원격수업·원격영농자문 등 광범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부터 경북대병원과 경북 울진의료원 사이에서 실시된 이와 비슷한 의료서비스는 기존 전화망을 이용한 것인 데 비해 이번 의료서비스는 전용망을 이용한 것으로 전송속도나 기능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인터넷 국내접속망 연내 전국 11개 지역 확대

세계 최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의 국내 접속망인 한국인터넷(KORNET)가 오는 12월 15일까지 부산,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돼 6천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코넷은 또 국내 최대 공중용 컴퓨터통신망인 하이네트-P와도 연결돼 전국 어디서든 손쉽게 국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지난 6월말경 상용 서비스에 들어간 한국인터넷을 이같이 전국망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만 운용 중인 한국인터넷 시설은 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7월말 현재 가입자는 2백26명으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가입신청에 따라 시설이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 한국통신은 새로 확장되는 통신망의 중앙운용센터는 서울에 두고 지역운용센터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설치하고 간이접속시설을 인천, 원주, 청주, 전주, 포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은 일반전화선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전용망을 이용하게 되면 통신품질이 좋고 접속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 시설이 확충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교통정보 7종 개발 5일부터 무료제공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기차표 예매상황 및 시각표 등을 알려주는 교통정보 7종을 개발, PC통신 하이텔로 무료 제공한다.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철도, 항공, 고속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의 시각표, 노선등 관련정보 및 관광, 공공기관정보 등이다.

이중 철도정보는 시각표 뿐 아니라 좌석예매현황까지 알려줘 열차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관광정보와 공공기관정보는 약도와 설명이 곁들여져 제공된다. 하이텔에 접속한후 초기 메뉴에서 공공정보를 선택한후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된다.

시스템공학연구소

전자도우미 개발 추진중

“어서오십시오. 어느 부서, 어느 분을 찾아오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전화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는 앞으로 2년뒤쯤 출현할 전자도우미의 모습으로 과거처 산하 시스템공학연구소 인공지능연구부가 현재 이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총 연구개발비는 32억원으로 1차년도인 올해는 분야별 기본설계와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2차년도인 내년에는 시험모델을 구축하며 최종년도인 '96년에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상품화준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자도우미에 대한 연구개발의 장기목표는 직장동 사업체나 연구소, 공공기관은 물론 주택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방문객을 인식, 출입을 통제하며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화도 대신 걸어주는 시스템이다. 그밖에도 일본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인식해 통역도 해주며 장애인을 위한 점자 번역과 자동차에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만능로봇구실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박사는 “전자도우미가 완성되면 프론트의 안내뿐만 아

나라 미리기억된 수배자의 얼굴을 인식해 순식간에 범인을 찾아내는 역할도 해내는 등 적용범위는 무한하다"고 말한다.

축협중앙회

STM, 축협중앙회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전북 김제에 건설하고 있는 육가공공장에 정보처리회사인 STM과 계약을 맺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95년 5월 준공예정인 이 공장은 하루 2천 마리의 돼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수출용 및 내수용 부분육등 1차 육가공품 46t과 햄, 소시지, 통조림등 2차 육가공품 26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다. 축협은 이에 따라 95년 12월까지 10억원을 투자해 본사와 김제공장에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물류센터와 대리점을 연결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생산, 구매, 영업, 회계관리 등 각종 시스템이 포함된다.

한국과학재단

과학재단 연구정보 지원사업 강화

한국과학재단의 이공계 대학에 대한 연구정보 지원 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 박진호)은 오는 2001년까지 국내외 기초연구에 관련된 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서비스하는 종합 연구정보시스템(Clearing Service)을 구축하고 기초연구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확충, 서비스하는 등 연구정보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재단은 현재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추진중인 "국가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서 국내외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정보 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재단이 구축하게 될 종합연구정보시스템은 연구인력·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 연구관련정보의 핵심요소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연구수행자는 물론 프

젝트지원기관 및 관리기관 등에서 관련정보를 손쉽게 획득, 활용토록 함으로써 중복개발을 방지하는 등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과학 재단은 기존의 연구인력 및 연구보고서 데이터베이스와 향후 구축될 연구 결과 및 과학 기술 일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연구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정보 제공서비스를 전담하는 "클리어링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검색 및 유통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전산망을 통한 연구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과학재단은 또 현재 2만여명밖에 구축하지 못한 국내연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2001년까지 5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연구자 누구나 즉시 검색해 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연구보고서 데이터베이스도 팩스 및 전화망 등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학의 연구기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고가의 연구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자들에게 최신 연구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키 위해 국내외 학술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재단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활동중인 연구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외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종합 뉴스

국가기간전산망에 민간투자

최근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민간투자는 아직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이 정부예산에 철저히 의존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국가기간전산망의 민간투자는 지난 '92년말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인 한국 무역정보통신이 관세청 해상화물 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불이

당겨졌으며 최근에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정보망에 한국통신이 참여하고 상공부의 산업정보망 사업에 세일정보통신이 각각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또한 해상 화물 통관자동화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항공화물자동화사업에도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특허청도 특허전산화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어서 공공전산화사업의 민간투자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보사부 국민복지망 사업중 의료보험부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EDI(전자문서교환)망 시범사업을 의료정보망(MEDI-NET)이란 명칭으로 단독투자해 벌이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30억원 이상을 투자, 내년 1년간 의료보험연합회와 서울지역 종합 병원·병원·의원 등 1백개 의료기관을 연결해 의료보험 업무를 EDI로 주고받는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전의 자회사인 세일정보통신 역시 최근 상공부가 추진하는 산업정보망사업의 전담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5백 90억원을 투입, 상공부 산하기관 및 단체·기업을 네트워크로 연결, 각종 산업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관세청의 해상화물 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에 2백 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데 이어 항공화물 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하고 관세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도 오는 '98년까지 추진하는 특허전산화사업의 총예산 1백 76억원 중 정부예산을 제외한 1백 76억원을 민간투자자로 유치, 해결할 계획이다.

초고속 SW기술개발 계획착수

정부는 국가 초고속정보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초고속정보화 추진 관련 SW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연구기획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기로 했다. 과기처는 최근 국가 초고속정보화 추진 연구개발 전담반회의를 개최, 시스템공학연구소(SERI)를 초고속 정보화 추진을 위한 SW 기술개발 연구

기획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결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6개의 전문분과와 각 분과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전문위원을 선정, 발표했다. 연구기획사업은 2000년대 초고속정보화사회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기술개발정책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범부처적으로 활용될 응용시스템의 공통핵심SW 기술 발굴과 개발, 보급계획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정보처리 표준화 및 시스템보완 연구 전산망 정보기술교육 과학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등 6개분과로 나뉘어 추진케 된다. 이에따라 HCI분과와 정보처리 분과, 표준화 및 시스템보완분과에서는 초고속정보화 추진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정책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각 부처의 응용시스템개발과 운용단계에서 필요한 공통핵심 SW 기술발굴및 이에 대한 개발, 보급 계획을 수립케 된다. 또 연구전산망분과에서는 대덕연구단지를 시범으로하는 세계수준의 첨단서비스와 기술이 결합된 초고속 과학기술 전산망 구축모델 및 구현 방법을 연구하게 되며 정보교육 기술분과에서는 고급인력양성계획 및 교육용 SW의 발굴 및 개발, 보급계획 등을 연구토록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분과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풍부한 과학기술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유통 체제 및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이달중 주관기관과 사전연구기획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초고속정보통신망추진위원회에 상정해 국가계획으로 확정, 추진토록할 계획이다.

정보산업, 3.4분기 경기확장 국면에 돌입

지난 2.4분기 정보산업은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3.4분기에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사

실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백 78개 업체를 대상(응답 61개 업체)으로 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조사 대상 산업은 컴퓨터 본체·주변기기 등 컴퓨터하드웨어 산업과 SW개발·공급,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서비스산업 등이다. 이 조사에서는 2.4분기에 PC 내수와 수출이 크게 호전됐고 SW 개발용역의 수요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정보산업의 경기가 뚜렷한 상승세를 타 지난 '92년 3.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경기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4분기에도 정보산업이 PC 내수의 지속적인 확대, 주변기기의 내수 및 수출의 밝은 전망, SW 수용의 신장 등으로 시장여건이 호전돼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업체 자체의 대응방안 강구, 정부의 세제감면 및 지원책 강화 CD-ROM 타이틀 심의 절차의 간소화, 확실한 등급기준 마련 및 심의료의 축소 교육용 PC의 적정가격 산정 및 구매 업체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제공 등을 들었다.

교보문고

교보문고 광역통신망 구축

대한교육보험(대표 이중효)이 본사와 총국 및 영업국을 연결하는 광역통신망(WAN)을 구축한다. 대한교육보험은 최근 영업국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본사와 각 영업국간통신 비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오는 '95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본사와 각영업국에 설치된 기존의 근거리통신망(LAN)을 상호 연결하는 광역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는 우선 오는 10월까지 본사와 각 영업국간 모든 서류를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전자문서교환(EDI)을 가동하는 한편 오는 '95년까지 고객의 예약 사항이나 약관을 즉

석에서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영업국에서도 자료보관이나 재열람이 가능한 전산이미지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보는 광역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면 1백만건 이상의 문서출력을 없애 연간 3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원정보기술, 방사능 정보종합관리시스템 프로젝트 수주 미원정보기술(대표 박태성)은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주한 방사능 정보종합관리시스템(CARE)프로젝트를 수주,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원자력 시설의 비상사고 때 방재기술지원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회사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변수, 지역방사능 측정소의 정보,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측정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고데이터등을 종합분석하여 방재및 환경평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비상사태때 즉각적인 방호대책을 수립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원정보기술은 이 시스템개발을 계기로 앞으로 기상 예측및 재해예방 시스템등 환경에너지분야 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강원대학교

국내최초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개발-강원대 전자공학과

윈도우즈(Windows) 환경에서 사람의 음성을 인식,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강원대 전자공학과 정익주 교수팀은 12일 음성 카드가 장착된 윈도우즈 환경에서 컴퓨터 자판을 통한 입력이나 명령을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보이스 액세스(VOICE ACCESS)"를 1년여의 연구끝에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정교수팀이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486급 개인용 컴퓨터에서 2백단어를 1초이내에 인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음성으로 등록시켜 사용하고 윈도우의 기본 명령어 50여개외에도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

하면 프로그램당 1백 50개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보이스 액세스'는 음성인식 분야중 '화자중속 고립단어 인식'이라는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등록명령어를 두번 또는 세번 발음해 훈련을 시킨 후 사용하며 어휘와 어휘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만 두면 된다. 정교수는 "컴퓨터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등록 명령어의 수나 주변잡음, 또는 명령어들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지나 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발음할 경우 잘못 인식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소프트웨어가 상품화될 경우 음성을 통한 컴퓨터 조장이 가능해져 장애자나 일반인 가운데 초보자들도 조장이 용이해 컴퓨터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한 중소기업체의 음성카드 신제품에 제공돼 1~2개월후면 상품화돼 대량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포스데이타

포스데이타, 주택공사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공급

포스데이타(대표 성기중)는 10일 대한주택공사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인 "사이베이스"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 시스템을 도입해 재무관리와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지사를 연결, 각종 재무자료와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결재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12개 지사에 중형컴퓨터를 연결, 처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분산처리시스템으로 5억여원이 투자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멀티 원격 화상회의장치 개발

삼성전자는 ISDN(중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최대 24개 지역의 PC와연결, 음성과 데이터 등을 주고 받으며 화상회의를 할수 있는 멀티 원격 화

상회의장치(MCU)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화상회의 시스템은 전용선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다중 회의가 가능해 ISDN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번 제품에는 각 단말기 사용자들이 보내는 음성신호의 강도를 비교, 큰 순서대로 3개의 단말을 추출하고 그 중 목소리가 가장 큰 단말기 사용자의 음성과 화상을 출력하는 음성활성화모드와 특정 단말의 음성 및 영상에 우선권을 부여하는의 장제어모드 기능이 들어있다.

수원·이천·평택, 멀티미디어 트라이앵글 산업지대 형성

수원, 이천, 평택을 잇는 삼각 지대가 차세대 전자산업의 꽃인 멀티미디어 산업기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80년대에 반도체 공장들이 잇따라 건설되며,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형성했던 이 지역이 울들어 멀티미디어 사업 조직을 정비한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 등이 각각 수원, 평택, 이천에 멀티미디어 제품 생산 공장을 집중시키면서 미래형 신산업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삼성은 수원공장의 가전 라인 일부를 광주 하남공단으로 이전시키며 남는 공간을 멀티미디어 제품 생산라인으로 바꾸고 인접한 기흥의 반도체 연구소, 삼성종합기술원 등에서 관련 기술 연구를 반도체 공장에서는 멀티미디어용 반도체칩을 개발하는 등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금성사는 평택과 구미에 분산돼 있던 각종 하이 미디어 라인을 평택공장으로 통합하고, 서울과 수원 인근에 집중돼 있는 금성사연구소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의 전자.전기 계통 연구소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멀티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금성통신을 흡수 합병, 평택에 인접한 오산의 금성통신 공장을 멀티미디어 통신관련 생산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대전자

는 이천의 반도체 공장내에 비디오 CDP와 VOD 셋탑박스 및 정보기기의 생산라인을 집중시키고, 공장에 인접한 연구소에서 멀티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원, 이천, 평택을 잇는 3각지대 안

에는 컴퓨터전문업체인 삼보컴퓨터, 브라운관 제조업체인 삼성전관, CD 등 차세대 매체를 생산하는 SKC 등 멀티미디어 관련 업체들이 산재해 있어 이 지역이 2000년들어 본격화될 멀티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등장할 전망이다.

Database월드뉴스(국외)

Database world news (foriegn)

일본,아시아정보통신망 구축 검토

日本은 미래의 전세계 정보망과 관련한 아시아 지역의 역할문제와 한국, 태국, 싱가포르등을 연결하는 아시아 정보통신망 구축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우정성이 밝혔다.

우정성 관리들은 이날 교도(共同)통신과의 회견에서 우정성 자문기관인 통신위원회가 내년 가을까지 일부 내용을 매듭짓는다는 목표아래 오는 9월부터 조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한국, 태국, 싱가포르등과 같은 국가들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통신위원회가 각국의 관련 정책을 파악한뒤 이들 국가가 전세계 정보 통신망 구축 작업에 참여할수 있는 방안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아울러 지역정보 통신망 구축 계획 및 이에 따른 비용 문제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정보화사회 추진본부 설치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고도정보화사회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고도정보화사회를 위한 기반정비에 착수하기 위해 설치된 추진본부는 △ 광케이블망 등의 정보통신망 정비와 정보통신에 관한 규제완화 △ 고도 정보화사회에 관한 각나라와의

정보교환 등을 할 방침이다. 오오이데 우정상은 각의 뒤 회견에서 “정보통신망의 정비는 정부의 중요과제”라고 전제하고 “광케이블망 정비에 무이자융자를 하는 제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지쓰-NEC, 멀티미디어용 VOD 개발 착수

일후지쓰와 NEC가 멀티미디어용 VOD(비디오 온 디맨드) 개발에 착수했다. VOD는 차세대 영상전송시스템으로 시청자가 특정 비디오를 원할 경우 즉석에서 불러낼 수 있는 장치다. 후지쓰와 NEC가 개발하는 VOD시스템은 디지털 영상정보 관리, 전송을 위한 비디오서버, 영상신호를 초고속으로 각가정에 송신하는 ATM교환기, 가정용 단말기인 세트 톱 박스등으로 구성된다.

미 상원,정보통신 규제완화법안 가결

미상원 상업위원회는 클린턴정부의 정보고속도로구상과 관련,정보통신사업 규제완화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지역전화, 장거리통신, 케이블 데이터 등 3개 사업분야 참여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법은 또 지역전화회사의 기기제조를 허용하는 한편 미국내 제조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제 부품사용을 제한하는 등 보

호주의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다.

IBM, 데이터통신서비스기업 2사 통합

미국의 IBM은 계열 데이터통신 서비스기업 2사를 통합하여 신사업부문인 IBM글로벌 네트워크(IBM.GN)을 발족시켰다. IBM.GN은 전세계의 동사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시켜 ATM을 이용한 단일 네트워크 인프라로 재편하게 된다. 최근 IBM이 통합한것은 동사와 시어즈 로복사의 VAN 합병회사인 어드밴티스사와 IBM의 VAN사업부문인 IBM인포메이션 네트워크(IIN)사인데 신사업부문인 IBM.GN은 고속음성, 데이터 네트워크의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외에 IBM의 다른 데이터서비스 사업부문과의 협력에 의해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美 JCC, 멀티미디어 투자펀드 설립

미국의 일본계 기술컨설턴트회사인 JCC테크놀로지사는 투자컨설턴트회사인 인포메이션 크리어링 하우스(ICH)와 제휴하여 94년내를 목표로 일본의 투자가를 대상으로한 멀티미디어 투자펀드를 조성, 설정할 방침을 굳혔다. 장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멀티미디어시장에 착안한것인데 일본국내에서도 이 시장 발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때라서 새로운 자금운영과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주목되고있다. JCC는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한 하이테크 컨설턴트회사로써 86년 설립되었는데 미국, 일본,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인 기업간 사업제휴, 투자매수, 기술이전 등의 실적이 있다.

OECD와 APEC, 내년 정보화 합동회의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에 가맹된 국가들이 정보화에 관한 합동회의를 95년 2월하순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다. 정부소식통이 밝힌 것으로 OECD와 APEC이 공동으로 정보화에 관한 회합

을 개최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미국등이 제창하고 있는 세계정보기반(GII)의 구축을 향해 각국의 생각이나 정비 진행방법 등을 토론하게 되는데 GII에 대해서는 7월에 나폴리 서밋에서 '95년초에 선진7개국의 정보통신 담당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본바 있어 여기에 OECD 25개국과 APEC 17개국이 참여함으로써 구상은 더욱 현실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오라클, 북경에 DB S/W 개발거점 설립

세계최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회사인 미국의 오라클은 '95년에 6백만 US달러를 투자하여 북경에 최초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거점을 건설한다. 동사는 '91년도 북경에 사무소를 설치한바 있는데 그후 150만 US달러를 투자하여 북경에 독자자본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재는 상해, 광주, 성도 등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리점 4사를 두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개발코스트를 줄이기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개발거점은 중국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하게 된다.

日통산성, 정보화투자촉진 신정책 입안

일본의 통산성은 기업의 정보화투자를 촉진하는 종합적정책의 입안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해 개방하거나 컴퓨터에 의한 기업간 수발주, 대금결제 등이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리엔지니어링등이 산업 정보화추진의 열쇠가 되기때문에 기업의 의식개혁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한다. 일본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연결됨과 동시에 정보통신기구나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컴퓨터 관련산업을 지원한다. 일련의 정책은 통산성이 8월 2일자로 설치한 정보화추진본부에서 검토하는데 기계정보산업국 전자정책과가 주책임을 담당하며 향후 정보화정책 검토과제를 해결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다. 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영화산업, 인쇄업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육성, 연구개발의 촉진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구체적인 과제는 기업의 정보화투자의욕을 불러 일으켜 컴퓨터관련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의 검토가 될 전망이다.

日통산성, 멀티미디어산업협의회 창설

일본의 통산성을 '94년 가을을 목표로 컴퓨터, 통신, 가전, 소프트웨어 등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전기업을 포함한 멀티미디어산업협의회(가칭)를 창설한다.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개별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멀티미디어산업의 진흥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데 출판, 영화, 소매업 등 콘텐츠(정보의 중심)산업을 포함한 업종 횡단적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한다.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는 일본 우정성이 멀티미디어 이업종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을 끌어들이는 활동을 하고있어 이들 기업을 관할하고 있는 통산성의 대항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산성이 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은 멀티미디어에 관한 개별기업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각기업이 어떤 체제로 멀티미디어에 어떻게 대응하 하고있는지를 조사하여 다양한 요망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정할 방침이다.

유럽온라인 본격출범

프랑스와 영국의 최대 미디어업체인 마트라 아세트사와 피어슨사는 유럽최초의 범유럽 시설정보통신 네트워크인 "유럽온라인"에 참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온라인에 참여하는 미디어업체는 독일의 부르다사까지 포함해 3개 업체로 늘어났다. 올해 7월 다수의 유럽금융업체를 비롯, 위성통신서비스업체인 아스트라사·부르다사 등이 설립한 유럽온라인은 이들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럽온라인은 미국의 서비스망인 아메리카온라인·프로디지·인터넷·지프네트 등과

유사한 것으로 앞으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전화회선·광케이블 및 통신위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럽온라인은 영어·독어·불어 등 3개국어로 서비스되며, 서비스 개시 6개월내에 7만명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우정성, 산하 2만4천우체국을 인터넷에 접속

일본 우정성은 산하 2만4천여개 우체국을 세계최대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빠른 시일내에 접속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 했다 일본 우정성은 이에 따라 우체국마다 인터넷에 접속된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설치, 일반국민들이 국내의 각종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성은 또 현재 구축중인 대규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망도 완성되는대로 이 서비스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9년까지 전국규모의 광케이블망을 구축한다는 사업계획을 얼마전 공개한 바 있는 우정성의 이번 발표는 일본보다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앞서 있는 미국의 인터넷 기간전산망을 활용해 정보고속도로구축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IBM,세계적 음성.데이터통신망 구축

미국 IBM이 세계적인 음성.데이터통신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IBM은 전세계에 있는 기존의 IBM관련 네트워크를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통신.정보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BM은 "ATM(비동기전송모드)"을 개발, 생산체제를 강화하는등 기업 조직체제를 네트워크관련 사업으로 대폭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IBM은 세계 94개국 7백개도시에 거점을 설치, 2만3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5천명이상의 서비스전문가를 확보할 계획이다. **DB**